

행복으로의 초대

(제1442호) 2022년 6월 19일 www.fgnews.co.kr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힐링 라이프

우리들의 블루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옴니버스 형식의 TV 드라마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편에 녹아 있다. 옴니버스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만든 한 편의 작품을 의미한다. 삶의 우여곡절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엮어내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작가가 의도하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공동체적인 연대감과 화해라는 주제가 들어 있다. 그래서 타이틀이 ‘너와 나의’ 블루스가 아니라 ‘우리들의’ 블루스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행복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마지막 회가 끝나면서 화면에 새겨진 글귀다.

성경은 여러 저자가 긴 세월을 걸쳐 쓴 66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지만 주제와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우여곡절 많은 우리네 인생의 해석자요 해결자이시다. 드라마의 엔딩대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해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그분을 만나야 한다.

이태형(기록문화연구소장)



문제 있는 자리에 꽃 화분을 가져 오세요

길모퉁이엔 언제나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장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하필 이곳에 쓰레기를 버렸다. 집안 쓰레기를 가져와서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았다. 행정기관은 누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가 감시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담벽에 ‘발각 시 벌금’이라고 표지판을 붙였으나 소용없었다. 여전히 길모퉁이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어느 날 행정기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이 길모퉁이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 자리에 꽃 화분들을 가져다 놓았다. 담벽에 붙인 표지판도 떼 내고 대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후로 이곳에선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도시는 시내 곳곳에 이처럼 꽃밭을 만들어 불법 쓰레기 폐기를 막았는데 열 대 분량이나 나오던 불법 쓰레기들이 겨우 한 대에 그쳤다고 전했다. 오래된 어느 도시의 이야기이다.

따뜻한 햇볕이 세찬 눈바람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봄을 재촉하고자 얼음을 깨지는 않는다. 따뜻한 햇볕이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봄이 온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쓰레기 폐기장이 되어가는 길모퉁이에 꽃을 가져다 놓기보다 벌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얼음을 깨서 봄을 재촉하려는 생각과 다르지 않는데도 말이다. 무엇을 금지하고 규제하여 처벌하면 악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대안이라 하기보다 응급처방이라 한다. 대안은 본질적인 처방이다. 응급 상황이라면 마땅히 응급처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본질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꽃 화분을 가져와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꽃 화분을 세상에 두는 일과 같다. 가장 본질적인 대안이면서 무엇보다 긍정적인 세상살이의 길이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한 송이 꽃을 담은 화분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35차 사랑의 헌혈 행사 진행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는 한마음 혈액원과 함께 12일 대성전 앞 베다니 광장과 교회 주변에서 제35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249명의 성도들이 헌혈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헌혈 행사로 현재

까지 총 7만 6948명이 동참했고 4만 5486장의 헌혈증서가 기탁됐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헌혈량이 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생명 나눔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섬김을 실천해왔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며 “헌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글·김주영 / 사진·김용두 기자